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72차 CATI조사

제87차 ARS조사

89차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9.4	38.4	24.7	7.6
ARS	29.0	37.4	24.6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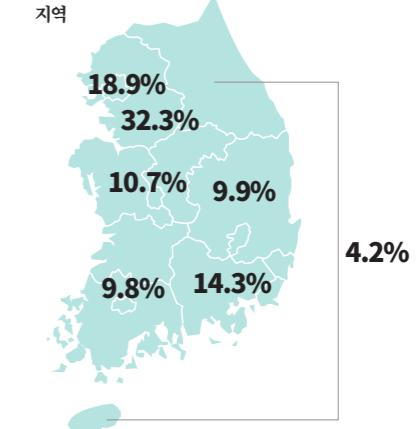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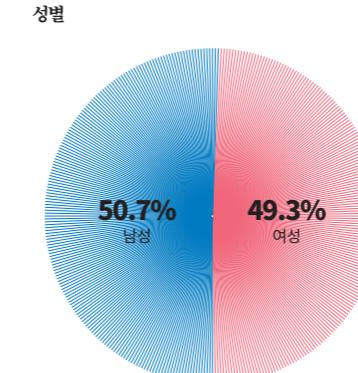
● 진보 ● 중도 ● 보수 ● 절모름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1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7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7)제공 무선기장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2.8% [총 통화시도 7,848명]
조사기간	2024년 6월 21일 ~ 6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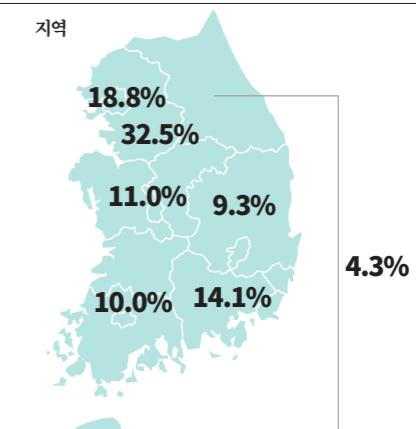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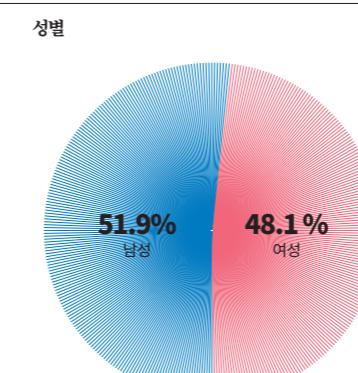
전체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08	50.7	495	49.5
	여성	493	49.3	506	50.5
연령	18~29세	159	15.9	158	15.8
	30대	147	14.7	149	14.9
	40대	182	18.2	178	17.8
	50대	198	19.8	197	19.7
	60대	173	17.3	173	17.3
	70세이상	142	14.2	146	14.6
지역	서울	189	18.9	188	18.8
	인천·경기	323	32.3	321	32.1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6	10.6
	광주·전라	98	9.8	98	9.8
	대구·경북	99	9.9	97	9.7
	부산·울산·경남	143	14.3	149	14.9
	강원·제주	42	4.2	42	4.2

**ARS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4,975명]
조사기간	2024년 6월 21일 ~ 6월 22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19	51.9	494	49.4
	여성	481	48.1	506	50.6
연령	18~29세	111	11.1	158	15.8
	30대	145	14.5	149	14.9
	40대	185	18.5	177	17.7
	50대	214	21.4	197	19.7
	60대	188	18.8	173	17.3
	70세이상	157	15.7	146	14.6
지역	서울	188	18.8	188	18.8
	인천·경기	325	32.5	320	32.0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6	10.6
	광주·전라	100	10.0	98	9.8
	대구·경북	93	9.3	97	9.7
	부산·울산·경남	141	14.1	149	14.9
	강원·제주	43	4.3	42	4.2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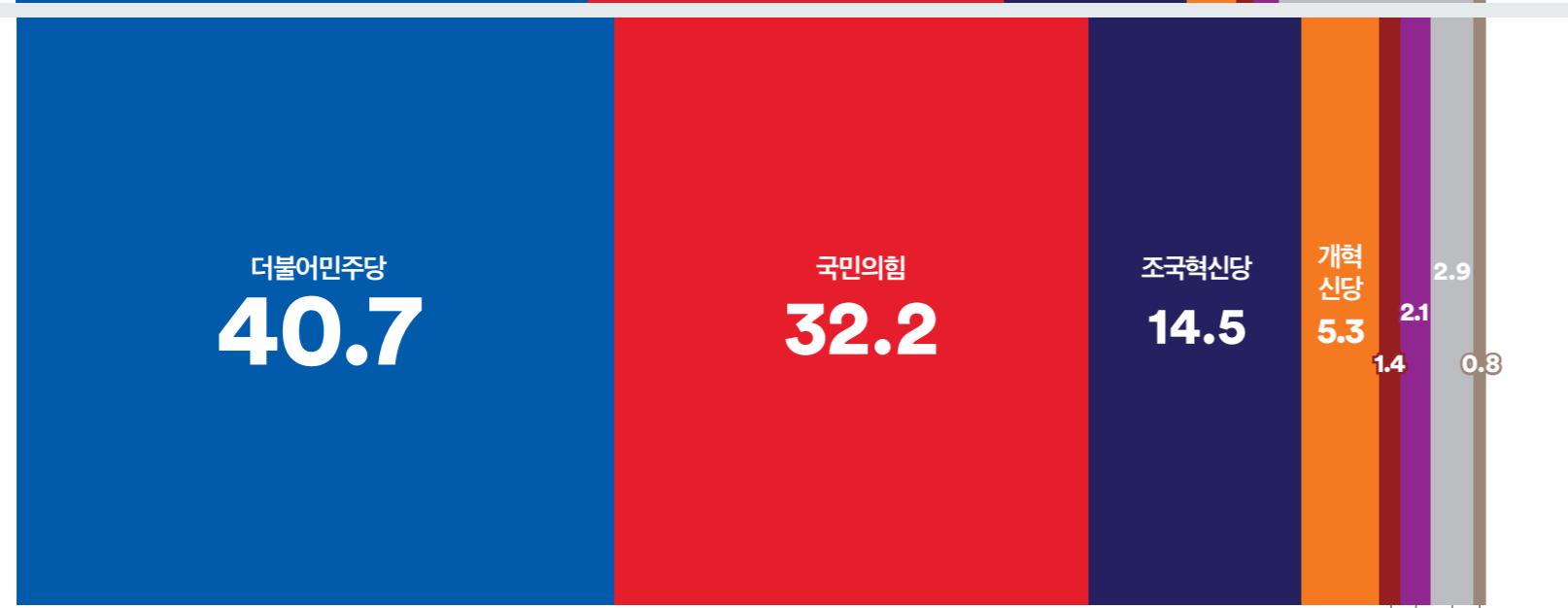
CATI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28.8	39.5	48.0	47.1	39.3	26.6
30대	17.2	14.1	16.8	25.7	39.1	59.6
40대	8.8	14.6	18.0	15.7	10.6	6.7
50대	34.9	7.9	9.9	6.2	5.2	
60대						
70세 이상						

이념성향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진보	58.7	8.7	21.7	6.8
중도	40.6	20.1	12.6	5.2
보수	16.9	65.4		6.8
잘모름	27.1	22.7	5.1	36.8

ARS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연령	37.4	40.9	54.2	44.6	35.3	28.9
30대	22.3	28.4	19.7	28.4	42.2	55.3
40대	12.0	15.5	21.3	18.1	13.2	
50대	13.0	7.4	2.1	5.4		
60대						
70세 이상						

이념성향	진보	중도	보수	잘모름
진보	65.2	7.9	19.9	6.1
중도	40.1	28.8	15.8	8.4
보수	16.8	64.0	6.0	6.1
잘모름	29.7	38.4	15.4	8.2

71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9% 하락, '국민의힘' 0.4%p 상승, '조국혁신당' 0.2%p 하락

86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5%p 하락, '국민의힘' 0.6%p 상승, '조국혁신당' 0.8%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0.6%p, ARS 8.5%p(지난주: CATI 11.9%p, ARS 10.6%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3.0%p, ARS 23.0%p(지난주: CATI 24.5%p, ARS 25.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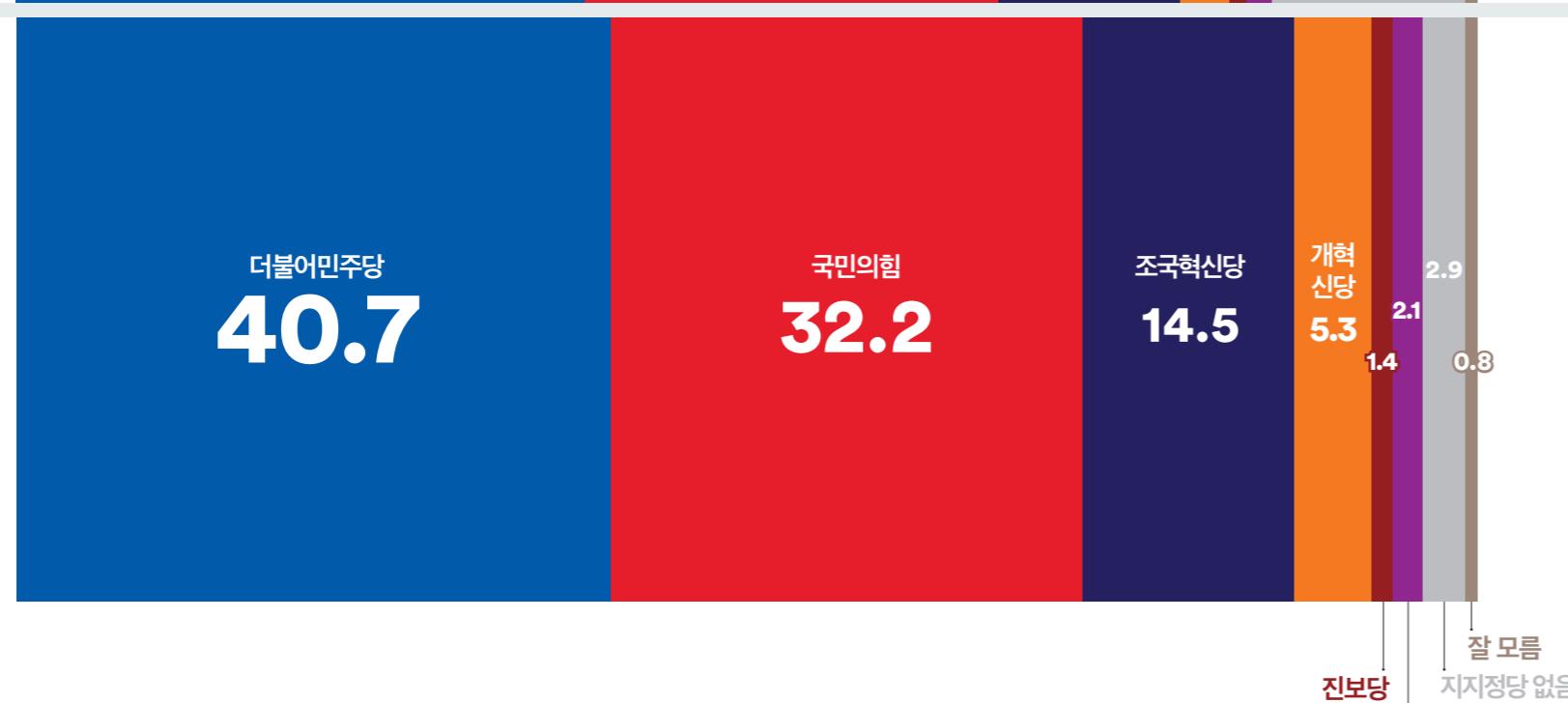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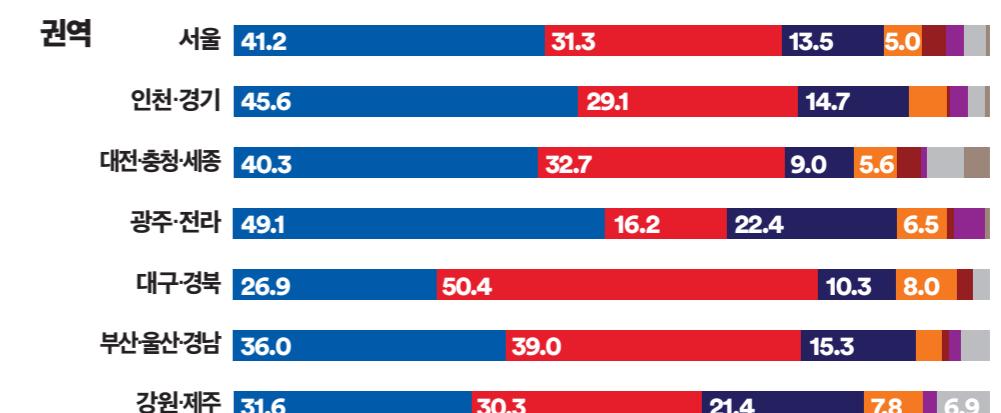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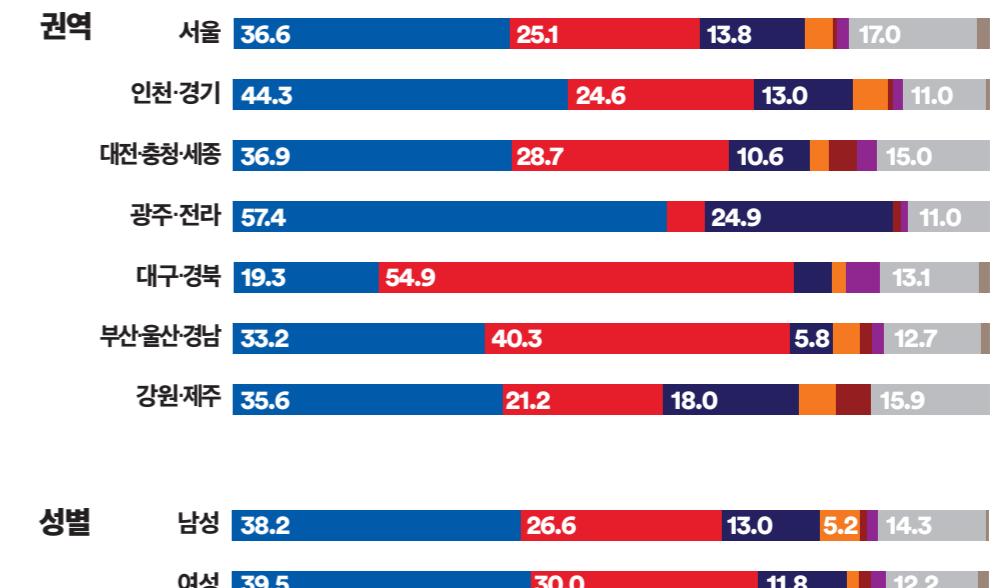
ARS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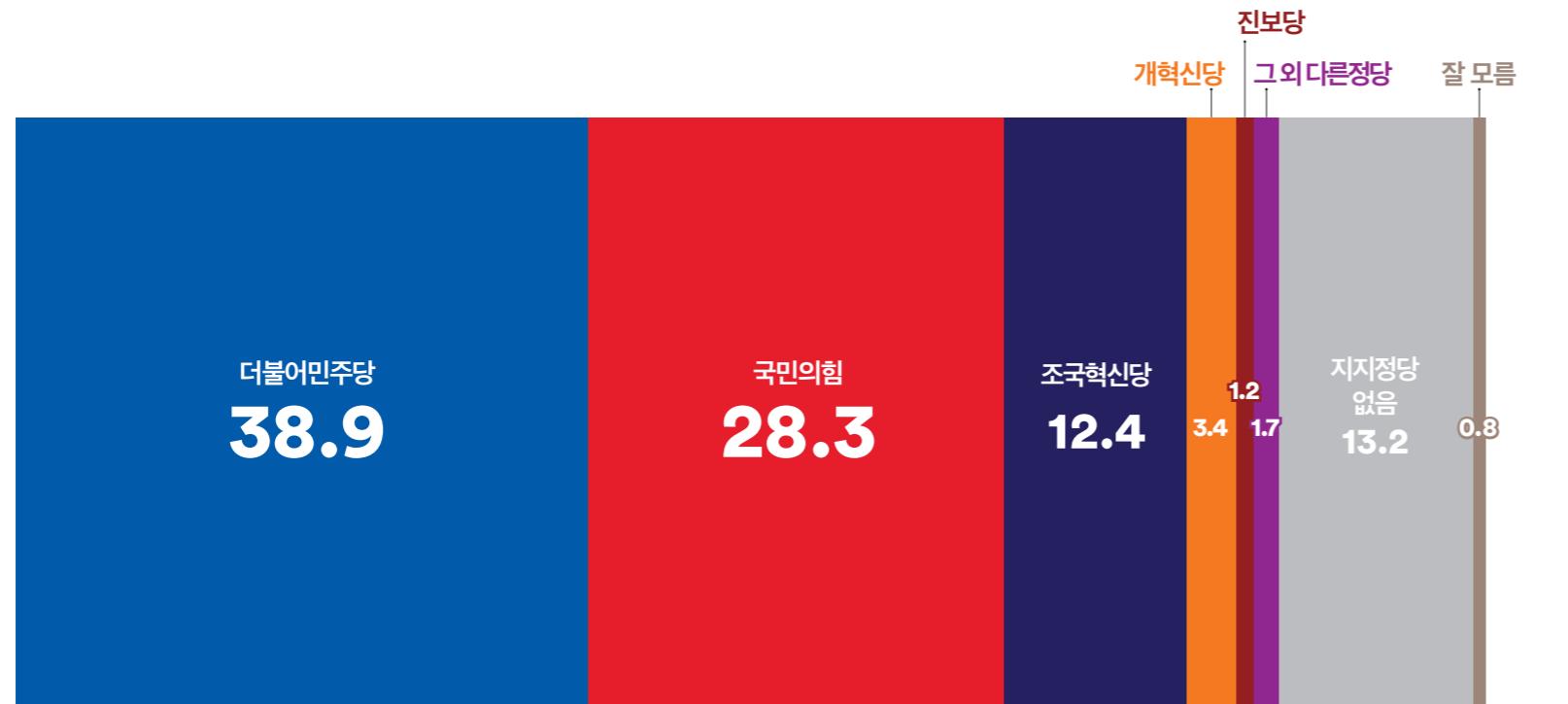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및 호남권(CATI 강원·제주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은 TK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범야권 합산 지지율 대비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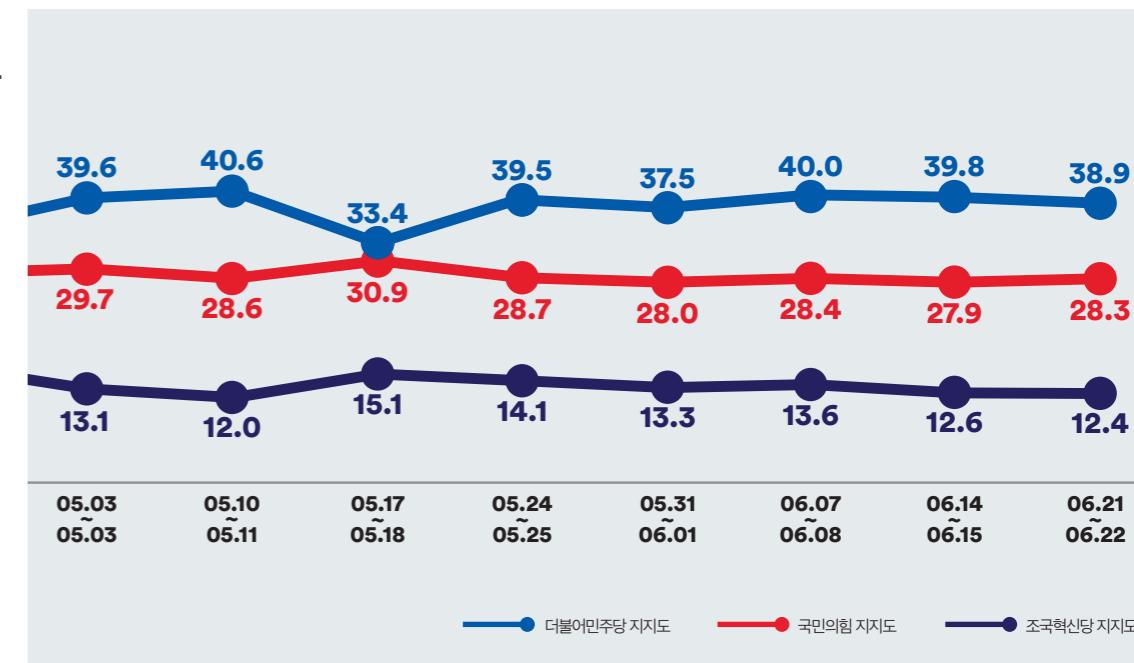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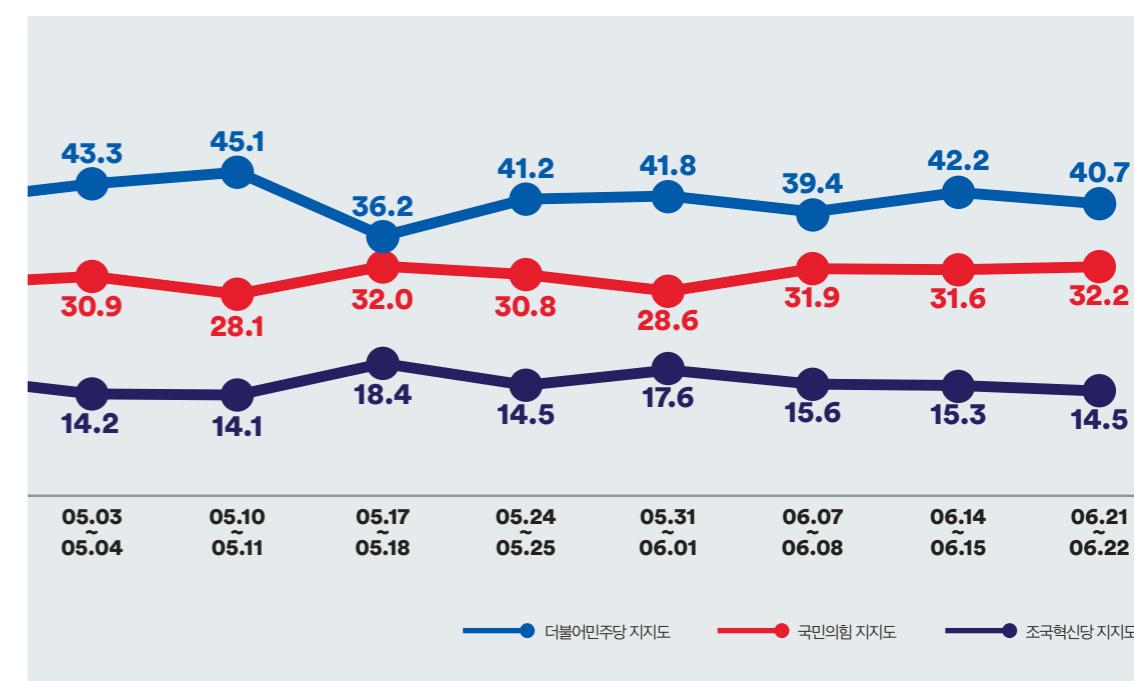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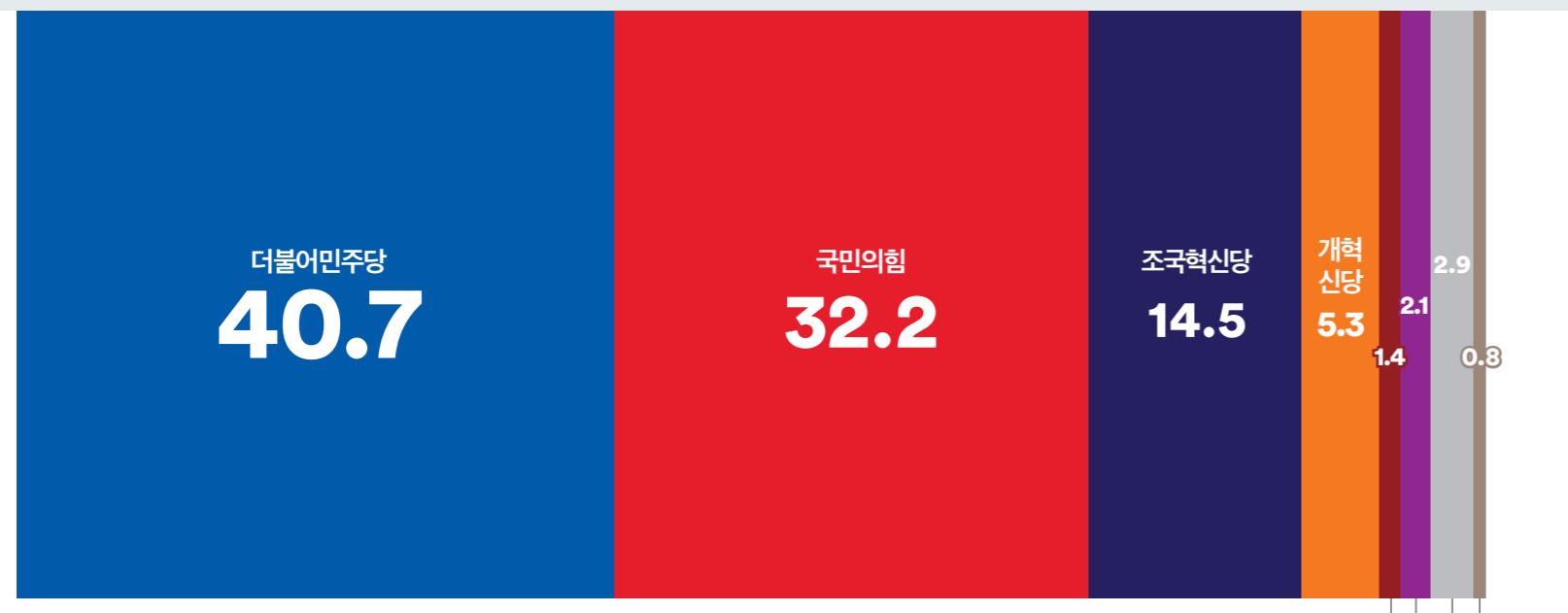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6%, '국민의힘' 20.1%, '조국혁신당' 12.6%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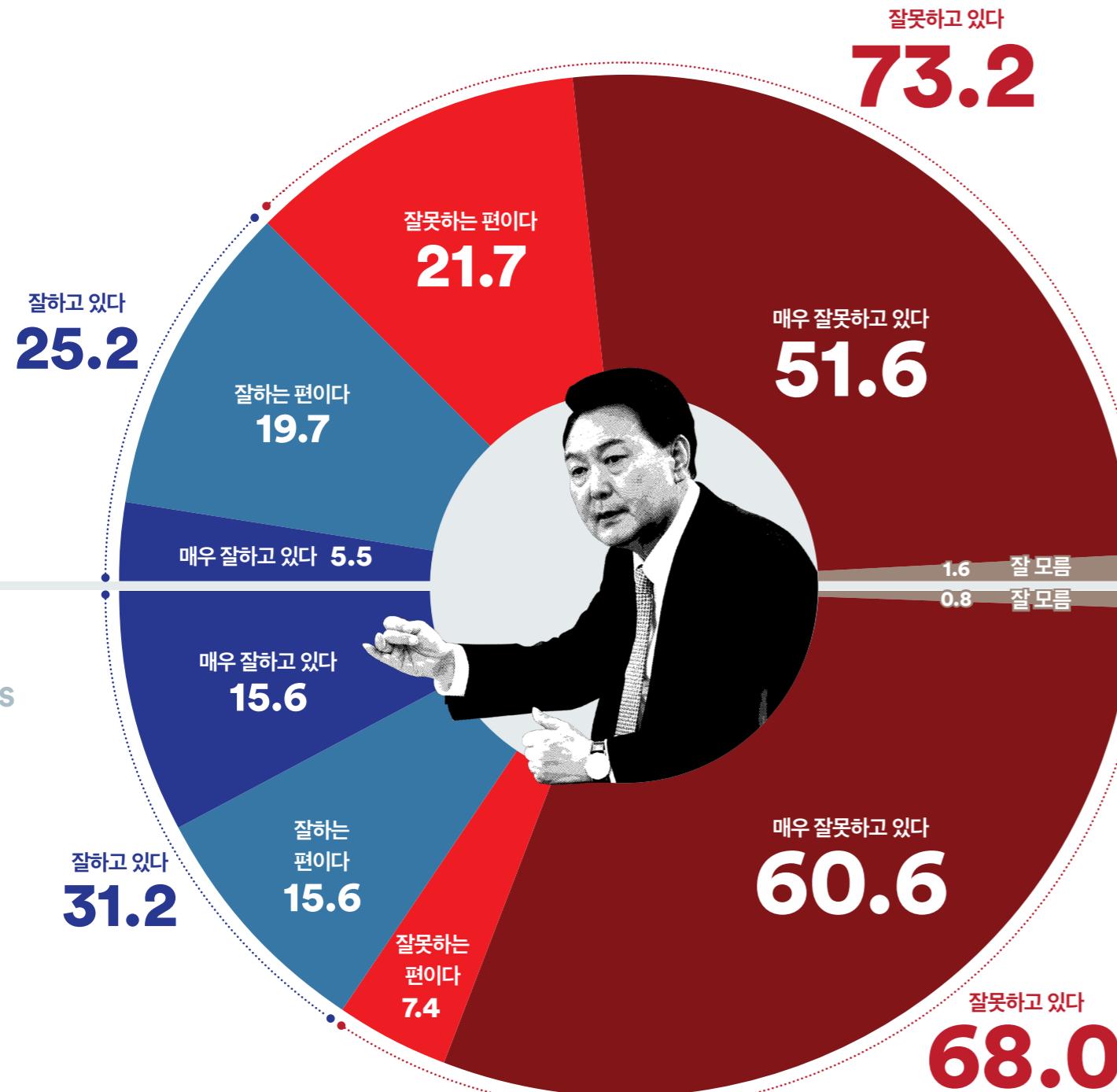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1%, '국민의힘' 28.8%, '조국혁신당' 15.8%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3.1%p(71차: 27.8%p), ARS 27.1%p(86차: 35.0%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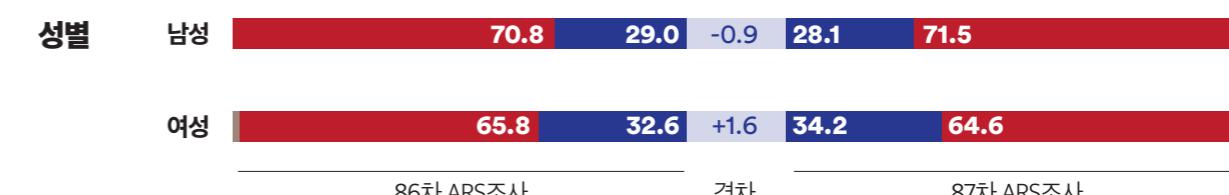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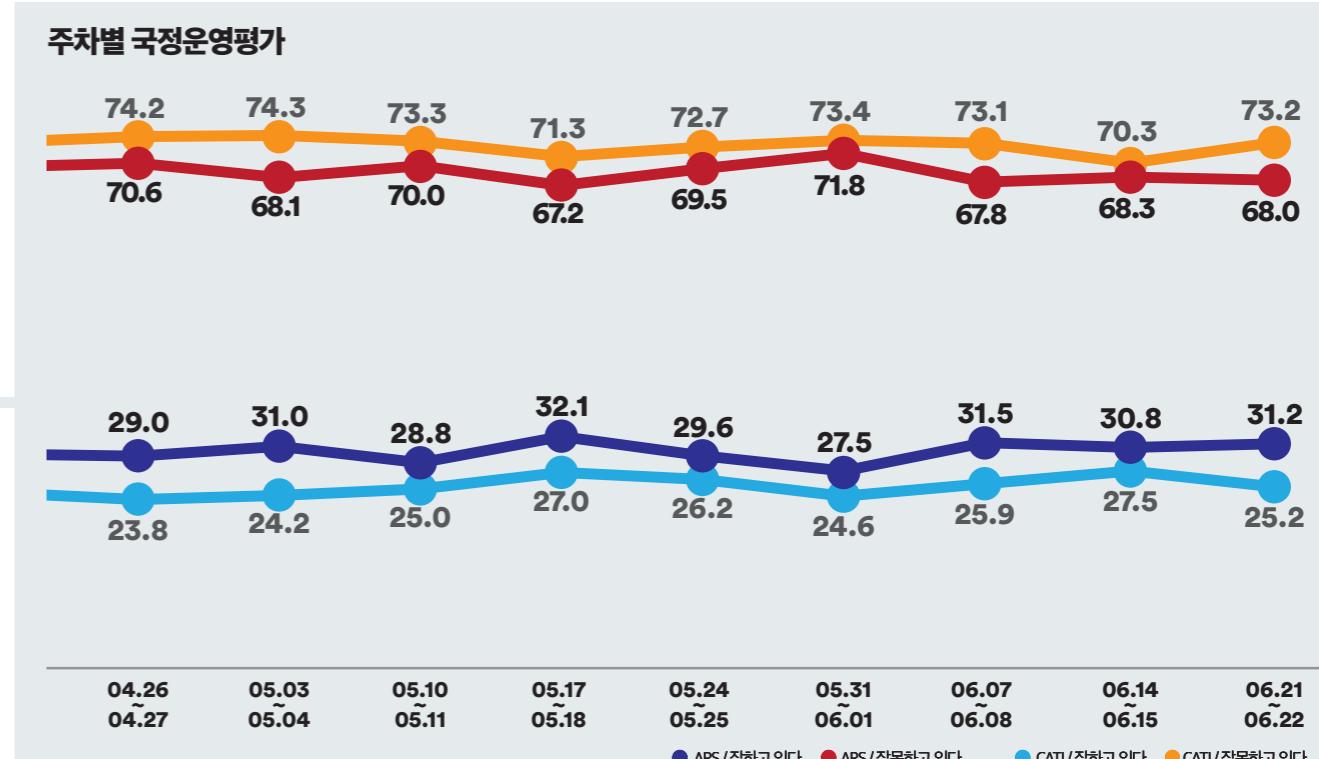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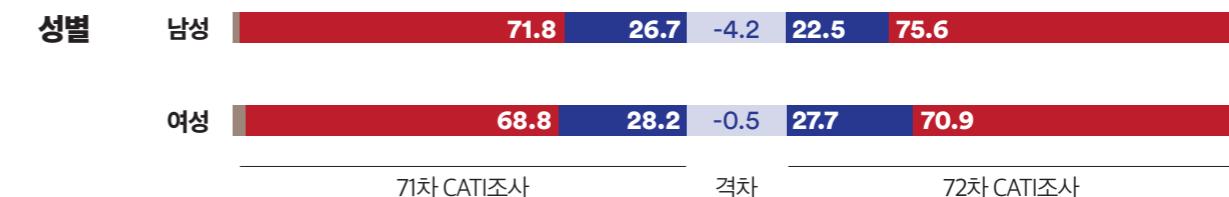


지난 71차 CATI조사 대비 '공정' 평가 2.3%p 하락, '부정' 평가 2.9%p 상승(격차 48.0%)

지난 86차 ARS조사 대비 '공정' 평가 0.4%p 상승, '부정' 평가 0.3%p 하락(격차 36.8%)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63.3%p(지난 조사: 54.0%), ARS 45.4%p(지난 조사: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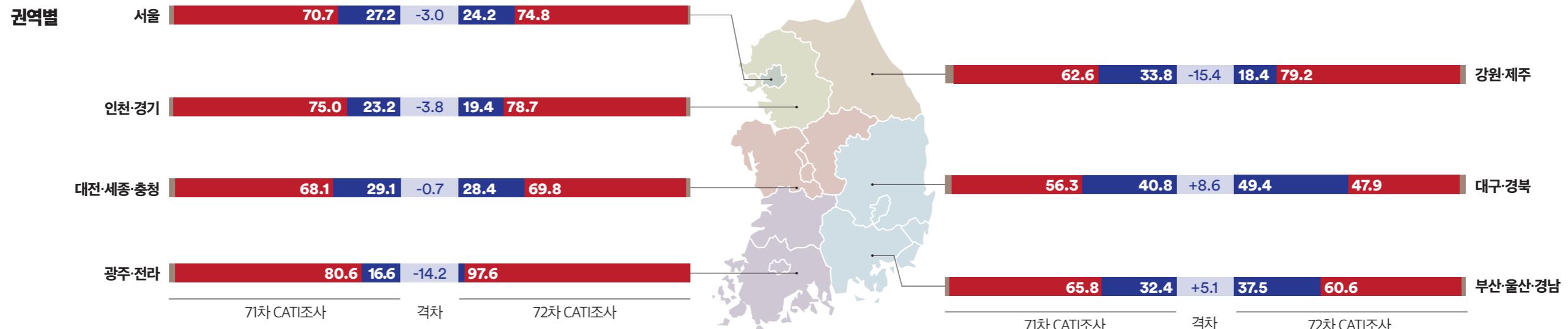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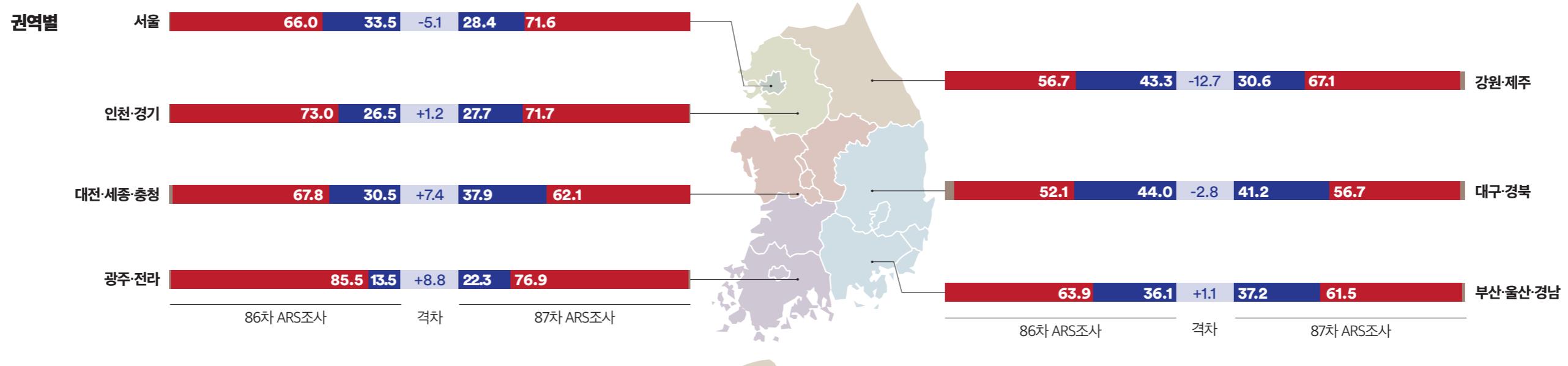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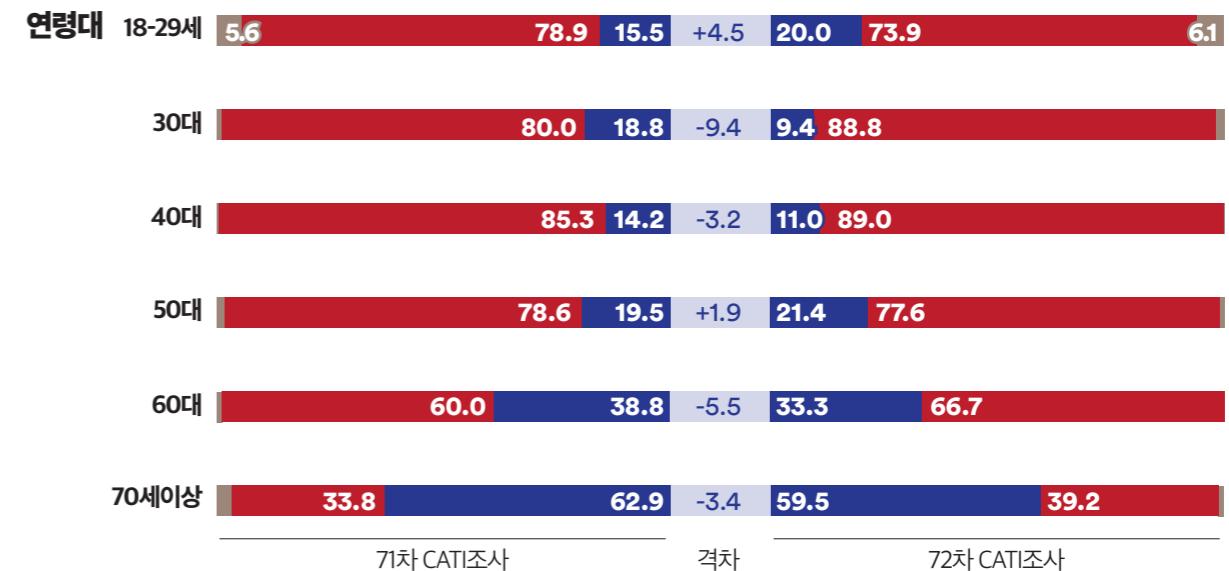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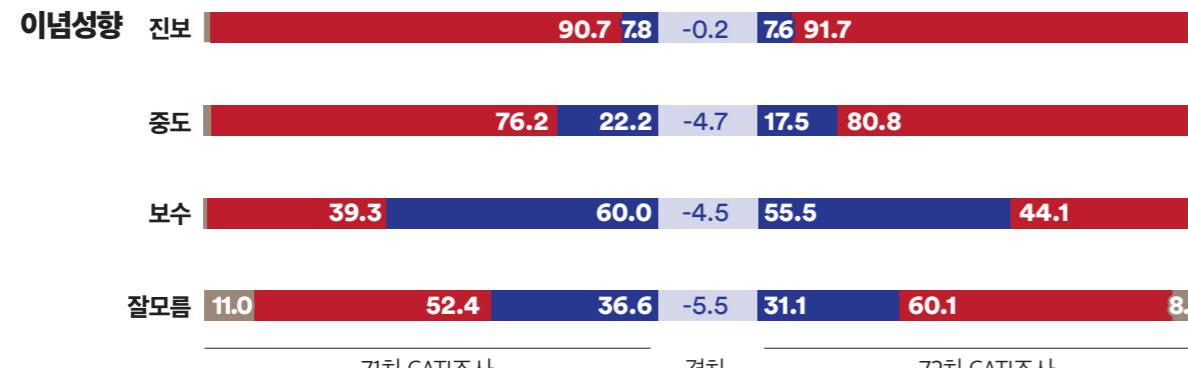
■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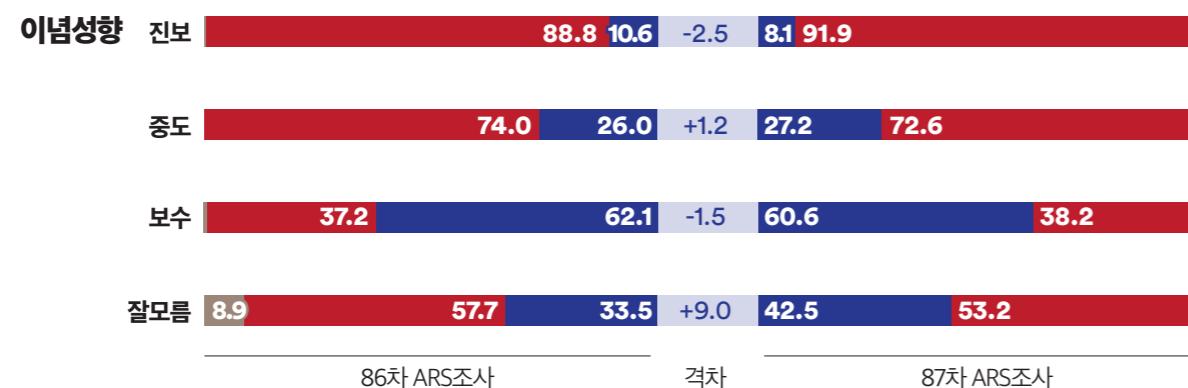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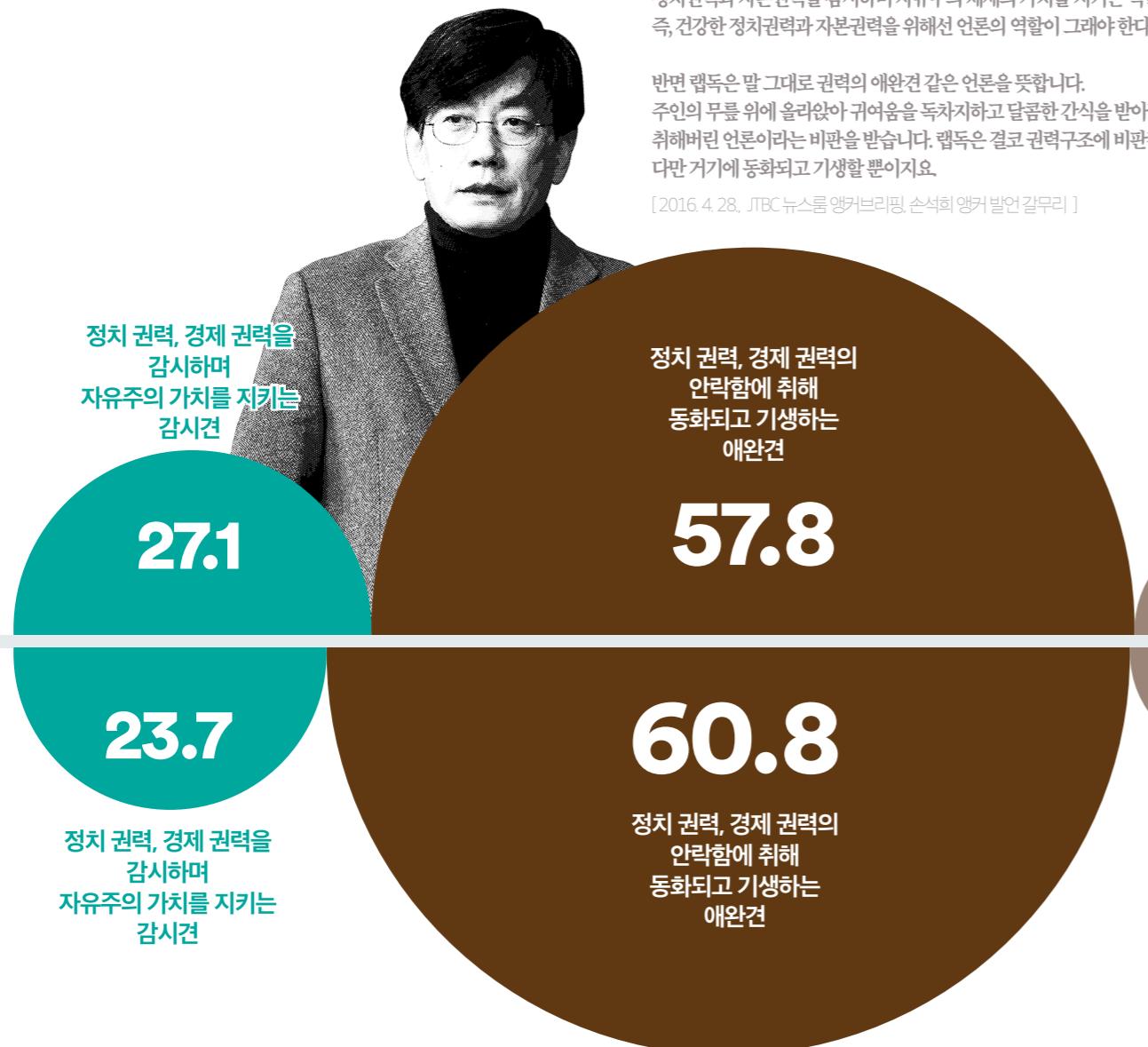


격차 (Light Blue), 잘하고 있다 (Dark Blue), 잘못하고 있다 (Red), 모르겠다 (Brown)

Q.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다음 두 비유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치독 Watchdog과 랩독 Lapdog입니다.

CATI



10명 중 5~6명은 언론에 대한 비유로 '권력의 애완견'이 적합하다고 응답
두 조사 모두 '권력의 애완견'이란 응답이 압도적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30.7%p, ARS: 37.1%p)

60대 이하 연령층 및 남·녀 모두 '권력의 애완견'이란 응답이 우세
진보층·중도층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권력의 애완견'이란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자유주의를 지키는 감시견'이란 응답이 우세

보수층의 경우, CATI 조사는 '자유주의를 지키는 감시견'이란 응답이 8.5%p 앞서고, ARS 조사는 '권력의 애완견'이란 응답이 6.3%p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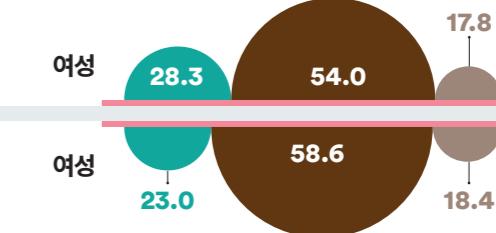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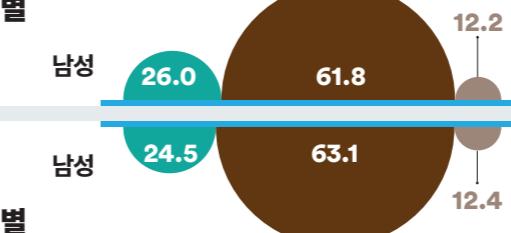
권역

서울	27.4	59.0	13.6
인천·경기	24.1	63.6	12.3
대전·충청·세종	29.1	55.4	15.4
광주·전라	20.8	64.0	15.2
대구·경북	38.3	42.8	19.0
부산·울산·경남	31.4	51.0	17.6
강원·제주	18.4	58.9	22.7

연령

18-29세	29.8	52.2	18.0
30대	26.1	64.9	9.1
40대	14.3	77.2	8.5
50대	26.0	64.2	9.8
60대	30.6	55.5	14.0
70세이상	38.6	27.3	34.1

성별



연령

18-29세	19.2	68.7	12.1
30대	20.0	64.8	15.2
40대	12.9	77.2	9.9
50대	22.0	67.0	11.0
60대	30.2	52.9	17.0
70세이상	40.5	29.3	30.2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0.5	83.4	6.2
국민의힘	50.4	21.6	28.0
조국혁신당	8.2	84.8	7.0
개혁신당	15.8	69.3	15.0
진보당	13.8	66.1	20.2
그외 다른 정당	24.2	53.1	22.8
지지정당 없음	17.3	45.1	37.6
잘 모름	66.6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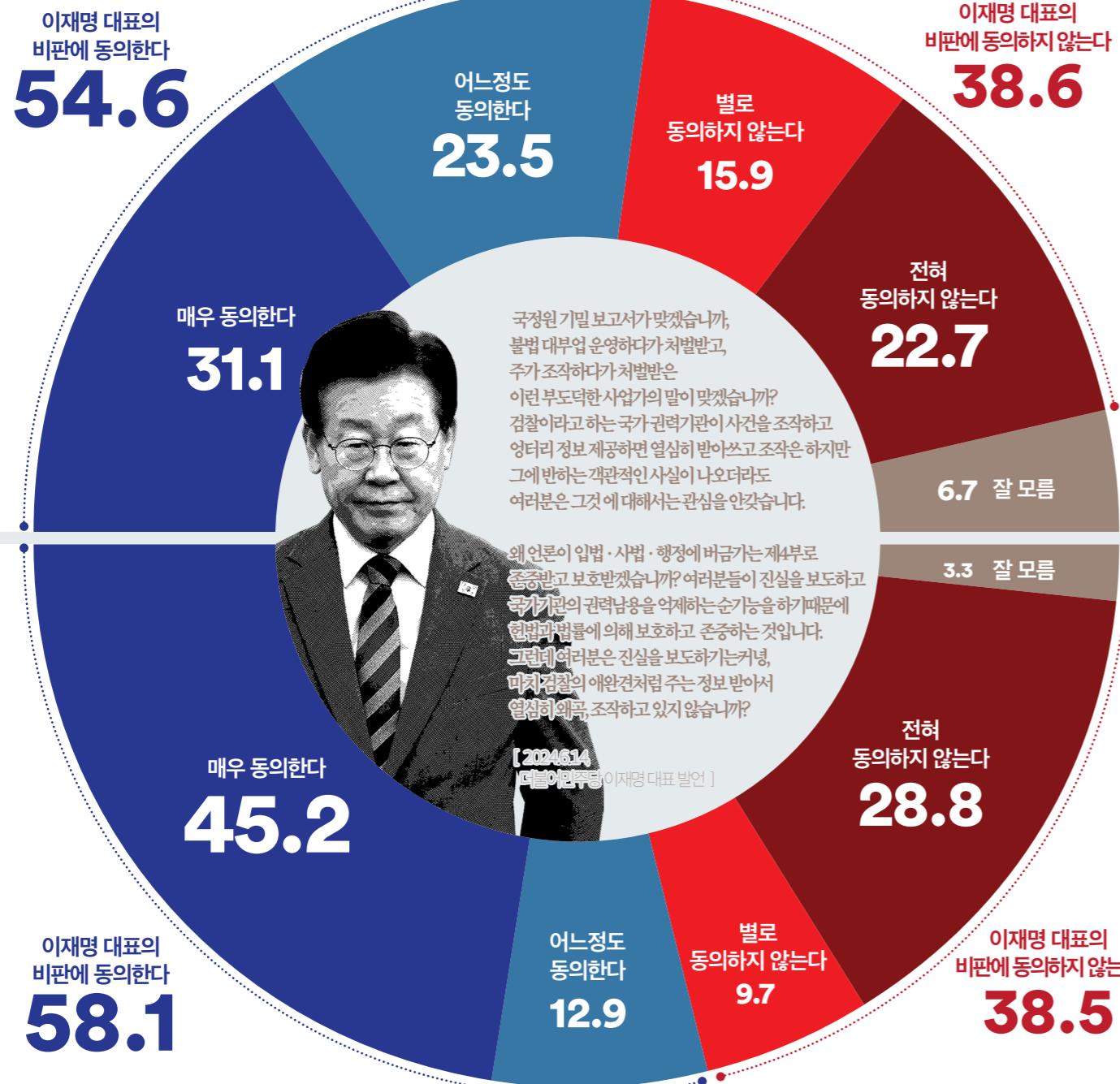
■ 김시건 ■ 애완견 ■ 잘 모름

‘검찰의 애완견’ 발언 공감도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의 시각으로만 사안을 보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16.0%p, ARS 19.6%p)

60대 이하 연령층, 진보층·중도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보수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 70세 이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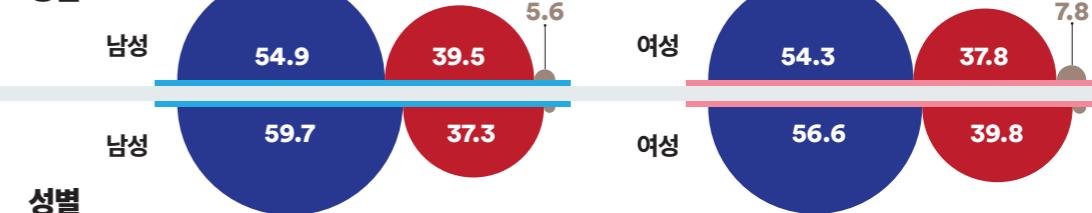
연령

18-29세	45.6	37.0	17.3
30대	56.8	36.1	7.1
40대	72.8	23.5	3.7
50대	65.3	32.0	2.7
60대	49.8	47.3	2.9
70세이상	31.2	60.3	8.5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1.9	14.3	4.8
국민의힘	19.6	74.5	6.0
조국혁신당	86.6	11.0	2.4
개혁신당	23.5	73.6	2.9
진보당	60.7	23.1	16.3
그외 다른 정당	42.5	52.4	5.1
지지 정당 없음	30.2	49.7	20.1
잘 모름	23.9	48.1	28.0

성별



권역

서울	59.5	36.7	3.8
인천·경기	63.5	33.2	3.3
대전·충청·세종	54.4	41.7	3.9
광주·전라	65.7	31.8	2.5
대구·경북	39.9	57.5	2.6
부산·울산·경남	54.1	42.2	3.7
강원·제주	59.1	38.6	2.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9.7	6.9	3.4
국민의힘	11.6	86.5	1.9
조국혁신당	88.2	9.8	2.0
개혁신당	39.6	53.3	7.1
진보당	62.3	30.9	6.9
그외 다른 정당	25.2	74.8	0.0
지지 정당 없음	36.6	48.4	14.9
잘 모름	58.5	29.5	12.0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 잘 모름

동해 석유 시추 사전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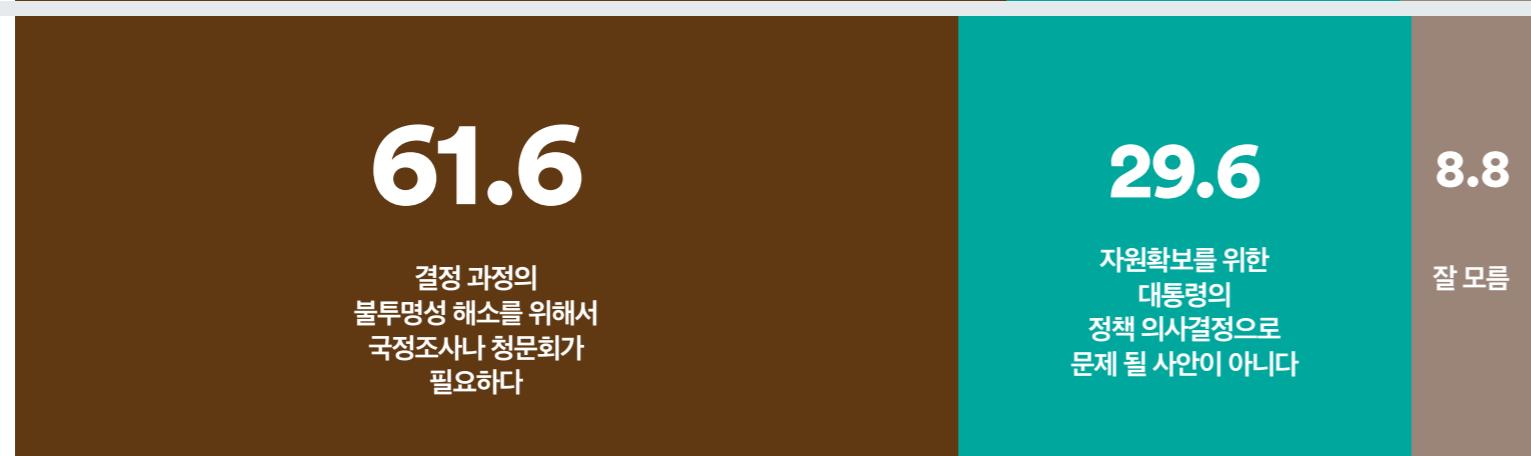
Q.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석유에 최소 5번 시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은 “대통령이 단계적 검증 없이 5차까지 미리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38.9%p, ARS 32.0%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섰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은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앞섰(응답 간 격차: CATI 14.6%p, ARS 5.1%p)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에서 우세

보수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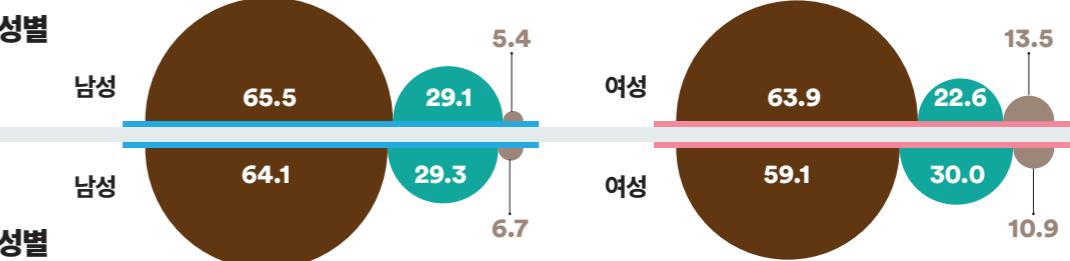
권역

서울	64.3	25.3	10.4
인천·경기	71.4	22.1	6.5
대전충청·세종	61.5	27.5	10.9
광주·전라	80.1	10.6	9.3
대구·경북	40.9	46.4	12.7
부산·울산·경남	57.4	31.7	10.9
강원·제주	67.5	19.8	12.7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0.8	5.3	
국민의힘	22.5	64.6	13.0
조국혁신당	90.7	7.8	
개혁신당	55.9	31.6	12.5
진보당	76.4	7.3	16.3
그외 다른 정당	71.8	23.1	5.1
지지 정당 없음	56.4	24.3	19.3
잘 모름	23.9	36.6	39.5

성별



연령

18-29세	64.0	28.8	7.2
30대	64.6	27.8	7.6
40대	78.9	17.9	
50대	68.1	26.1	5.8
60대	53.1	38.2	8.6
70세이상	36.0	41.1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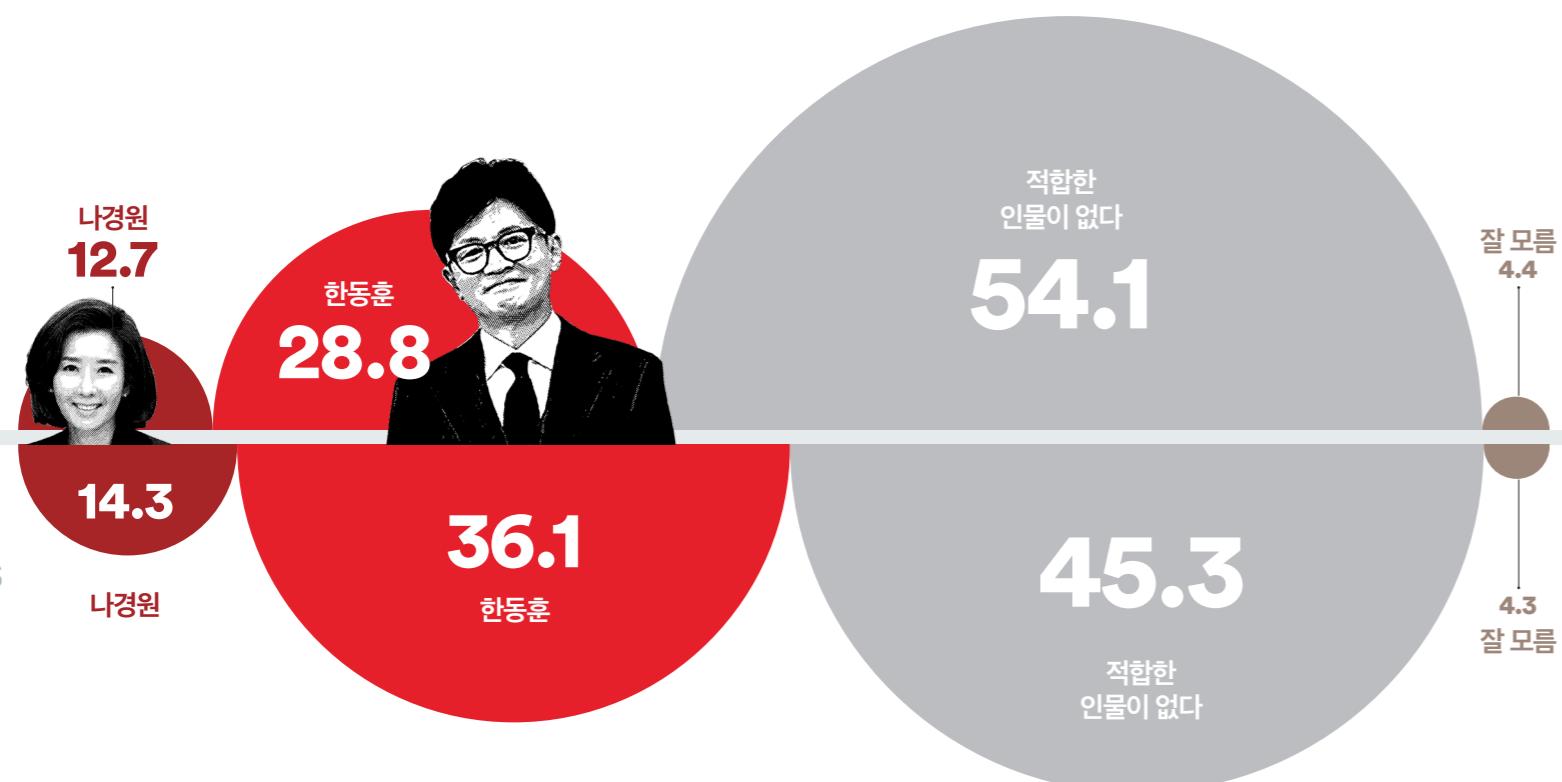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1.9		
국민의힘	12.2	76.6	11.3
조국혁신당	93.3		
개혁신당	67.7	23.6	8.7
진보당	46.5	30.3	23.3
그외 다른 정당	43.1	47.6	9.3
지지 정당 없음	40.2	22.4	37.4
잘 모름	41.6		58.4

국민의힘 당 대표 양자대결: 나경원 vs 한동훈

Q. 만약 다음 두 인물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양자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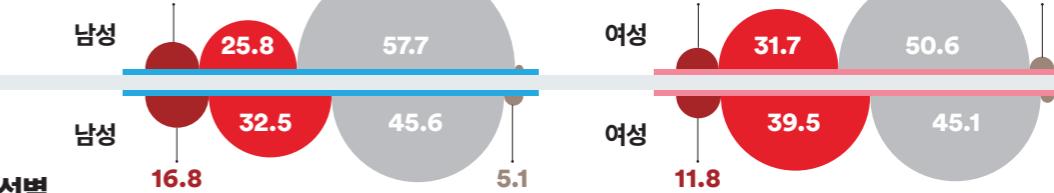
이념성향

진보층	12.0	15.8	69.2
중도층	14.6	21.8	60.1
보수층	13.8	55.8	27.9
잘 모름	25.1	52.5	19.9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3.8	10.9	70.7
국민의힘	11.7	70.5	16.1
조국혁신당	12.3	10.2	77.5
개혁신당	17.9	28.3	47.0
진보당	16.3	15.4	68.3
그외 다른 정당	16.3	62.4	21.3
지지 정당 없음	10.0	16.4	66.3
잘 모름	11.9	23.6	64.4

성별



이념성향

진보층	12.8	22.3	60.2
중도층	15.0	32.6	49.6
보수층	16.8	58.8	21.2
잘 모름	9.4	33.4	45.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4.4	15.7	64.5
국민의힘	15.5	73.3	8.7
조국혁신당	9.7	15.8	71.2
개혁신당	11.2	29.1	59.6
진보당	10.4	27.1	49.1
그외 다른 정당	31.3	27.0	37.1
지지 정당 없음	19.3	31.1	35.5
잘 모름	10.9	46.0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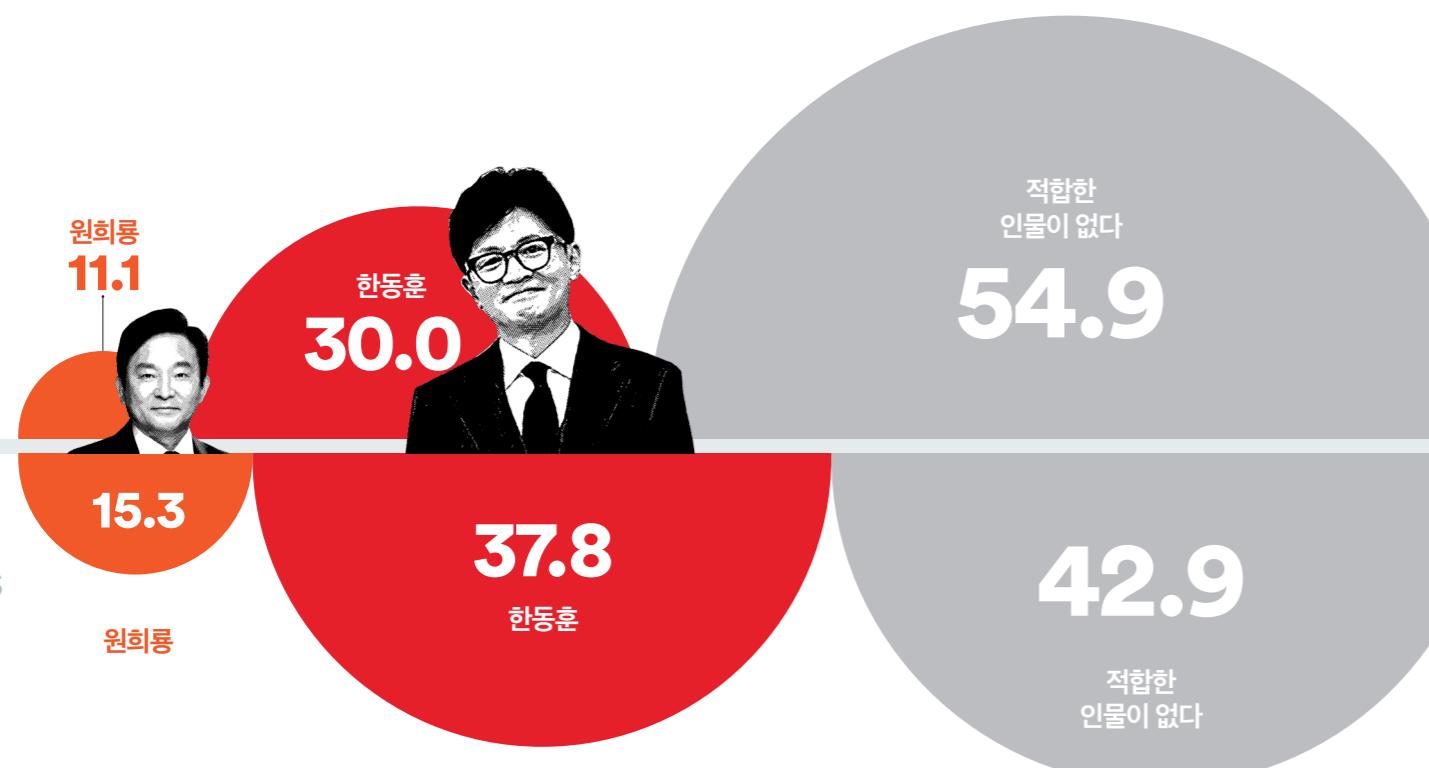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 '나경원'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간의 양자 가상대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 과반정도로 나타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세를 보임(두 후보간 격차: CATI 16.1%p, ARS 21.8%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이상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두 후보간 격차: CATI 58.8%p, ARS 57.8%p)
 보수층에서도 '한동훈'이 더 큰 지지를 얻고 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격차보다는 소폭 낮음(두 후보간 격차: CATI 42.0%p, ARS 42.0%p)
 두 조사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임 (70세 이상 응답자의 응답간 격차: CATI 35.1%p, ARS: 29.5%p)

■ 나경원 ■ 한동훈 ■ 적합한 인물이 없다 ■ 잘 모름

국민의힘 당 대표 양자대결: 원희룡 vs 한동훈

Q. 만약 다음 두 인물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양자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진보층	5.9	18.1	72.4
중도층	11.5	23.5	61.5
보수층	18.4	55.2	25.2
잘 모름	26.3	52.5	17.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1	12.5	76.9
국민의힘	19.8	67.0	11.8
조국혁신당	6.0	18.0	73.7
개혁신당	14.8	28.7	53.4
진보당	8.1	31.7	60.2
그외 다른 정당	17.2	66.6	16.2
지지 정당 없음	8.0	19.9	65.0
잘 모름	24.6		75.4

ARS

성별



이념성향

진보층	9.7	28.3	59.3
중도층	15.7	32.7	46.9
보수층	21.2	56.7	19.4
잘 모름	15.6	37.5	35.3
			11.6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10.6	19.3	64.6
국민의힘	21.8	70.2	11.8
조국혁신당	7.4	19.7	70.4
개혁신당	23.0	37.2	37.7
진보당	6.5	37.5	49.1
그외 다른 정당	42.7	27.0	30.4
지지 정당 없음	22.3	27.9	42.3
잘 모름	65.2	22.8	12.0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간의 양자 가상대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 10명 중 4~5명 정도로 나타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세를 보임(두 후보간 격차: CATI 18.9%p, ARS 22.5%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 정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두 후보간 격차: CATI 47.2%p, ARS 48.4%p)

보수층에서도 '한동훈'이 더 큰 지지를 얻고 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격차보다는 소폭 낮음(두 후보간 격차: CATI 36.8%p, ARS 35.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연령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임 (70세 이상 응답자의 응답간 격차: CATI 37.6%p, ARS: 24.1%p)

원희룡

한동훈

적합한 인물이 없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6_04

